

“휴가철 광주·전남 공동 여행상품 이용하세요”

‘광주시티투어’ 화순적벽·소쇄원 등 전남코스 운영 ‘남도한바퀴’ 여름 코스 광주호생태원·포충사 경유

관광순환버스인 ‘광주시티투어’와 ‘남도한바퀴’가 광주·전남 공동 상품 운영을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시티투어’가 화순 적벽과 영광 백수해안도로 등 전남 인기 관광지를 연계한 상품을 내놓았고, 전남도의 ‘남도한바퀴’도 광주호호수생태원, 포충사 등 광주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코스를 선보인다. 18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관광사와 전남관광재단이 지난 4월 광주·전남 비교 우위 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인프라)을 연계한 공동 여행 상품 개발 협약을 맺은 뒤 첫 결과물로 여름 상품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티투어버스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등산권 지질명소 투어’, ‘빛고을 남도투어’ 코스를 운영한다. 금요일·일요일은 응성산의 수려한



관광순환버스인 ‘광주시티투어’와 ‘남도한바퀴’.



자태를 담은 화순 적벽과 우리나라 최고의 원림 담양 소쇄원을 경유하는 ‘무등산권 지질명소 투어’ 코스를 운행한다. 토요일·일요일에는 자연이 숨 쉬는 함평자연생태공원, 영광 백제불교대지와 백수 해안도로를 경유하는 ‘빛고을 남도투어’ 코스를 운행한다.

남도한바퀴 상품은 지난 6월부터 운행 중인 여름 코스를 바탕으로 광주지역 주요 관광자원을 경유한다. 매주 화요일·금요일, 2회 운행한다. 화요일엔 색색의 꽃단지가 있는 ‘광주호호수생태원’을 포함한 ‘화순·담양 비경여행’ 코스, 금요일엔 광주시 제7호

기념물이자 역사와 문화를 품은 포충사를 경유하는 ‘함평·무안 낭만데이트’ 코스를 선보인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한다. 송정역을 경유, 탑승·하차도 가능하다. 전남 관광지의 역사나 문화를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관광지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도 이뤄진다. 예약은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이나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가능하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와 인접한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보다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찬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광주의 관광지를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 항저우 정기노선과 연계한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시범 운영하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박선경기자



광주시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동구 예술의거리 일대에서 1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예술 상생 프로그램인 예술상품 ‘내마음속 풍경그리기’, ‘나만의 감성가득 향수만들기’ 모습. <광주시 제공>

동구 예술의 거리 ‘광주아트공항’ 변신

12월까지 10여개 문화예술 프로그램... ‘미술여행지’ 탈바꿈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가 ‘광주아트공항’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미술여행지로 거듭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와 함께 ‘2024 예술의거리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동구 예술의거리 일대에서 1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술의거리 사업’은 여향 광주를 상징하는 예술의거리에서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문화예술인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과 문화예술인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올해 예술가 역량 강화 사업으로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사업인 ‘활주로-37’과 ‘아트페어 참가’를 지원한다. ‘활주로-37’은 작가 레지던스를 통해 문화예술가를 위한 거점공간을 구축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또 예술의거리 작가가 지역 갤러리와 협력해 광주

및 타 지역 아트페어에 참여, 예술의거리를 알리고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트페어 참가를 지원한다. 예술 상생 프로그램으로 블루밍살롱 ‘소소마켓’, 게임놀장(플리마켓), 예술살롱을 진행한다. 작가와 상인의 협업으로 예술의거리를 특화거리로 디자인하는 예술의거리 활성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작가와 상가 매칭을 통해 공간을 디자인하고 점포 맞춤형 아트상품을 개발하는 ‘아트인샵’, 걷는 순간 함께 담고 싶은 ‘포토존 제작’으로 공간을 차별화한다. 예

술의거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영상과 사진,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는 ‘예술의거리 이야기’, 거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거리담론’도 진행한다. 이 밖에 연례대별 예술의거리 즐기는 방법, 불거리, 떡거리, 핫플레이스 소개 등 ‘숨은 예술의거리 찾기’ 영상 공모를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예술여행의 중심인 ‘예술의거리’가 광주의 문화예술의 특화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가와 상인, 시민들이 상생하고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에 노력하겠다”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경기자

영암 KIC, 내일 ‘발물놀이터’ 오픈

3-12세 유아·어린이 전용

전남도는 18일 “여름방학,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Korea International Circuit)을 찾은 관광객에게 20일부터 어린이 안전 물놀이장인 발물놀이터 등 썸머패키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물놀이터는 수심 30cm 이하로 어린이가 이용하기 안전한 물놀이장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위해 매주 물 교환, 수질 검사를 진행하며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 유아와 어린이다. 레저카트와 VR가상체험관 패키지 이용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8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제외)다. 성수기인 29일부터 8월9일(매주 화요일 정기휴무일 제외)은 주중에도 운영하며 오전 시휴장한다. 발물놀이터 개장과 함께 전남도는 KIC에 레저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카트장은 F1시트를 축소 조성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스피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레이싱 카트를 즐길 수 있으며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인은 레저 카트와 바이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VR가상체험관에서는 가상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시물레이터 모션 체험 영상관을 비롯해 시물레이터 카레이싱 기구 6종을 즐기며

릴만점 모터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오토캠핑장, 넷어드벤처, 썰매, 자전거도로 등도 갖추는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찾은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했다”며 “여름 휴가철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농기원, 농업재해 기술지원단 가동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8일 “여름철 폭우·폭염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군 분야별 전문 39개 반 307명으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을 가동한다. 지원단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토사 유실, 시설물 파손, 작물 침관수 피해 등 농업 분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도·시·군 연계 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 신속한 상황 공유와 작목별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벌인다. 특히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으로 식량작물, 과수 등 40개 작목의 생육단계별 26종의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자연과 공존하는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라마다프라자호텔 & 씨원리조트 자은도

개장 2주년 기념

SO COOOOOL~

PKG 특가 이벤트

판매기간 ~7/23
투숙기간 ~9/30

PACKAGE
EVENT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ww.class-one.co.kr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1길 163-101